

2022년 12월 15일

제 30호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배현준(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연·진·한 시기의 장성이 요동지역을 지나 한반도 서북부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교과서, 박물관 및 학술 논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해외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 글은 요동지역 장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에 장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배현준(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1. 들어가며

미국에서 출판된 중학생 세계사 참고서 『월드 히스토리(EVERYTHING YOU NEED TO ACE WORLD HISTORY IN ONE BIG FAT NOTEBOOK)』에 중국의 만리장성(萬里長成)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된 사실이 언론에 최근 보도된 적이 있다.¹⁾ 여기서 말하는 만리장성은 중국의 여러 시기의 장성 중 연(燕), 진(秦), 한(漢) 시기의 장성이다. 이 시기의 장성이 요동지역을 지나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월드 히스토리』가 참고한 만리장성 지도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Wikipedia’ 사이트의 장성(The Great Wall) 소개 글이나,²⁾ 전세계 지도를 모아 놓은 ‘maps of world’ 사이트에 제시된 장성 관련 지도와 거의 동일하다(그림 1).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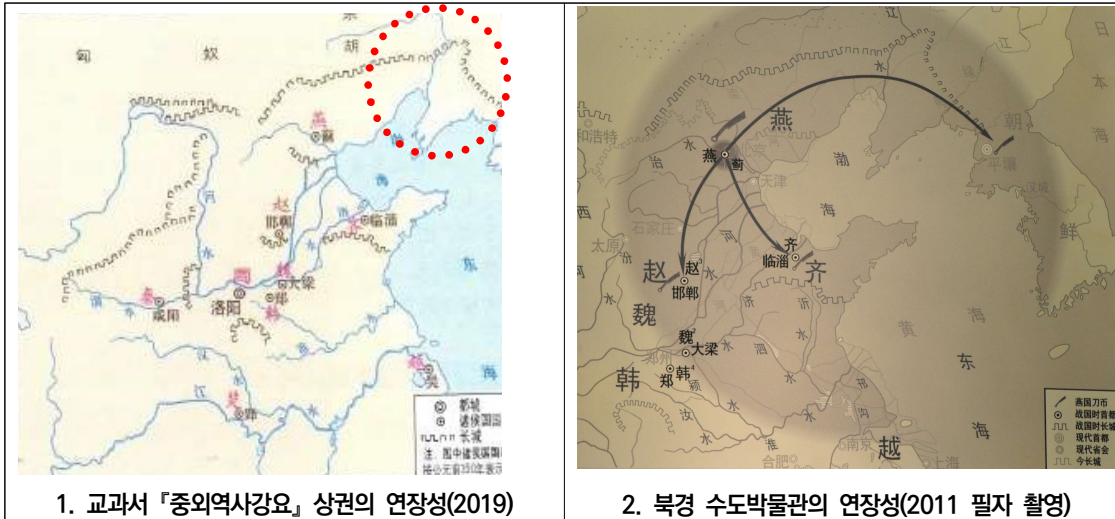


〈그림 1〉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만리장성 지도

이렇게 해외 역사 관련 서적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요동-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된 연·진·

1) “美월드 히스토리 속 만리장성, 한반도까지 뻗었다.”(연합뉴스, 2022-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8053500371?input=1195m>)
 “청소년 교재에 어떻게 이런 사진을…역사책 보고 ‘깜짝’ 놀랐다.”(매일경제, 2022-11-18, <https://www.mk.co.kr/news/society/10536575>)
 2) https://en.wikipedia.org/wiki/Great_Wall_of_China#/media/File:Map_of_the_Great_Wall_of_China.jpg
 3) <https://www.mapsofworld.com/answers/history/how-old-is-great-wall-china/attachment/great-wall-of-china-on-china-map/>

한 시기의 장성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교과서, 박물관 및 학술 논문을 통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해외 여러 매체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2).



〈그림 2〉 중국 교과서와 박물관에 소개된 만리장성 지도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 과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까지 장성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에 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동지역의 장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 장성에 대한 중국 학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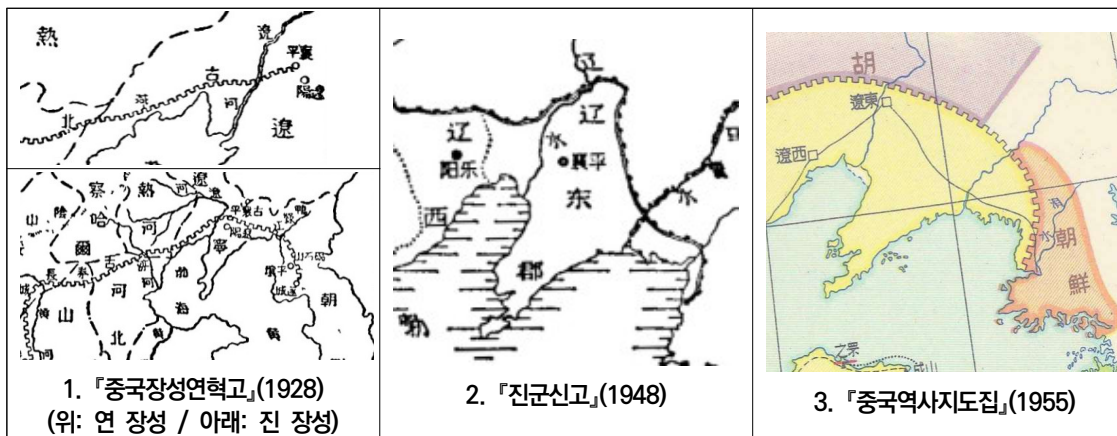
2.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요동지역의 연·진·한 장성

한국의 첫 번째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중국 전국시대 7웅 중 하나인 연나라, 통일제국인 진나라, 한나라와 서쪽으로 경계를 마주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중국 고대 문헌에 이들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진·한 시기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고조선을 물리치고 고조선의 영역에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시작은 한나라 시기 편찬된 『사기』와, 진(晉)나라 시기 편찬된 『삼국지』에 인용된 「위략」 등에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군 진개(秦開)가 고조선의 서쪽 땅을 침공하고 2천여리의 땅을 빼앗았으며,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후 몽염(蒙恬)에게 연나라 등 전국시대 각 나라가 축조한 장성을 고치고 연결하여 장성이 요동까지 이르게 하였고, 한나라가 진의 방어시설(塞)을 수리하여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단편적인 기록은 연·진·한 시기를 거쳐 요동지역에 장성이 축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 연·진·한 장성은 기본적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연속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요동지역에서 연 장성이 발견되기만 하면 이는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진 장성이나 한 장성이 발견되면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무리를 범한다. <그림 1> 요동지역의 장성은 색깔은 다르게 표시하였지만 동일한 노선으로 표현된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학계의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소위 ‘동북공정’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주장은 아니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2002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요동지역 장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 왕귀량(王國良)은 1928년 만리장성에 대한 문헌 정리를 바탕으로 연 장성과 진 장성 분포도를 작성한 바 있다. 그 지도에 연 장성은 요동지역의 양평(現 요양)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진 장성은 한반도 서북부의 평양 아래 수성(遂城)에 이르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진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에 이른다는 주장은 일찍이 일본인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巖吉)가 1910년에 발표한 『진장성동단 및 왕검성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에서도 보이는 바, 이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치상(譚其驤)의 『진군신고(秦郡新考)』(1948), 구제강(顧頡剛)의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1955)에 제시된 지도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⁴⁾



<그림 3> 중국 초기 지도에서 보이는 진장성의 동단(공석구 2016 수정)

그러나 모든 연구가 단순히 문헌 기록에만 의존해서 장성의 범위를 추정한 것은 아니었다. 1930·40년대부터 이미 중국 동북지역의 장성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지 조사를 통해 요서의 적봉지역에서 서-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장성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비록 장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증원계 청동기, 전국~한 시기에 사용된 명도전, 오수전과 같은 화폐가 출토된 유적의 존재, 한나라 시기의 마을 및 무덤 유적 등이 발견된 사례를 고려하여 장성의 범위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반도 서북부의 위원 용연동, 영원 도관동, 창성 이천동 등지에서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이 출토된 사례는 『진서·지리지』의 “수성에서 진 장성이 시작한다.”는 기록과 결합되어 연·진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⁵⁾ 이에 따라 기존에 요양을 동단으로 여기던 연 장성도 진 장성과 마찬가지로

4) 공석구, 2016,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

5) 佟柱臣, 1947, 「赤峯附近新發現之漢前土城址與古長城」, 瀋陽博物館專刊 『歷史與考古』 1(민국35년); 佟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956-1.

지로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장된다.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규모 장성 조사를 진행하여 연·진·한 장성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⁶⁾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축적된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논지를 더욱 보강한다. 특히 요령성 단동시 애하첨고성(愛河尖古城)에서 “안평락미양(安平樂未央)” 명문이 있는 한대 와당이 출토된 바 있기에, 요동군의 동계는 압록강유역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은 진을 계승했기에 진의 세력 역시 압록강유역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았다.

동시에 평안남도에서 발견된 연나라 화폐와 철기 및 진과(秦戈) 등 유물, 요동지역의 무순 연화보 출토 다량의 전국 철기, 요서지역의 내만기 사파영자(沙巴營子) 전국고성 출토 진시황 26(廿六)년명 도량형, 적봉지역 출토 진시황 조서(詔書)가 새겨진 토기 도량(陶量)과 철권(鐵權)을 통해 요서와 요동,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가 연진의 영역에 속했으므로 그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장성도 당연히 요서-요동-한반도 서북부를 지나는 것으로 보았다.⁷⁾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의 결합을 통해 연·진·한 장성은 대체로 비슷한 노선을 거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탄치샹이 1982년 발간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 집약된다(그림 4). 이 지도집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중국 교과서, 박물관은 물론 역사·고고학계 등에서도 대체로 그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그림 4〉 『중국역사지도집』(1982)의 연·진·한 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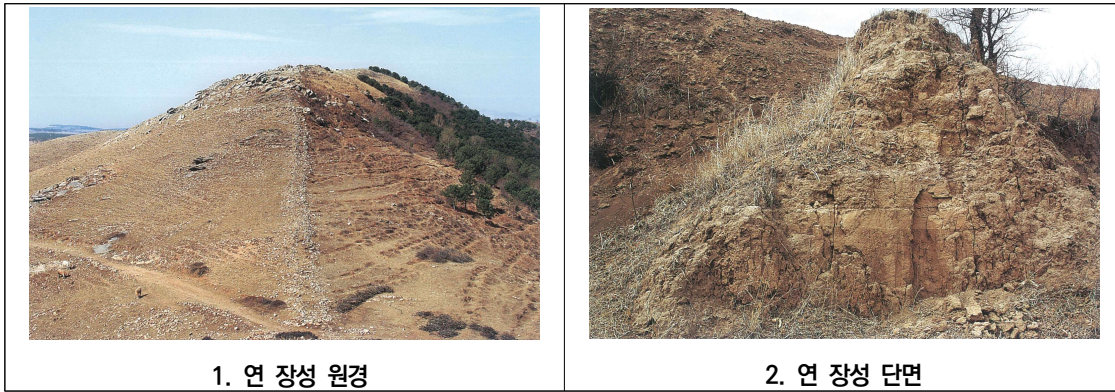
3. 변화하는 장성선(長城線)

장성하면 흔히 만리장성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성벽이 떠오르겠지만, 현재 연·진·한 장성으로 거론되는 성벽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상당 부분 훼손되어 현재는 성벽의 기초부 정도만 남아 있다. 연·진·한 장성은 기본적으로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흙을 채취하기 용

6) 이종수, 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韓國史學報』 43.

7)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1.

이한 지역의 경우, 흙을 바로 채취하여 일정한 두께로 켜켜이 다져 쌓아 올렸으며, 산등성이나 암반에 위치하여 흙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 돌을 쌓아 장성을 축조하였다(그림 5). 한편 장성 부근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지휘를 위해 축조한 방형 혹은 장방형의 작은 성[장(障)] 또는 연락이나 감시를 위한 봉수대(烽燧臺)가 배치되기도 한다.⁸⁾



〈그림 5〉 요서지역의 연 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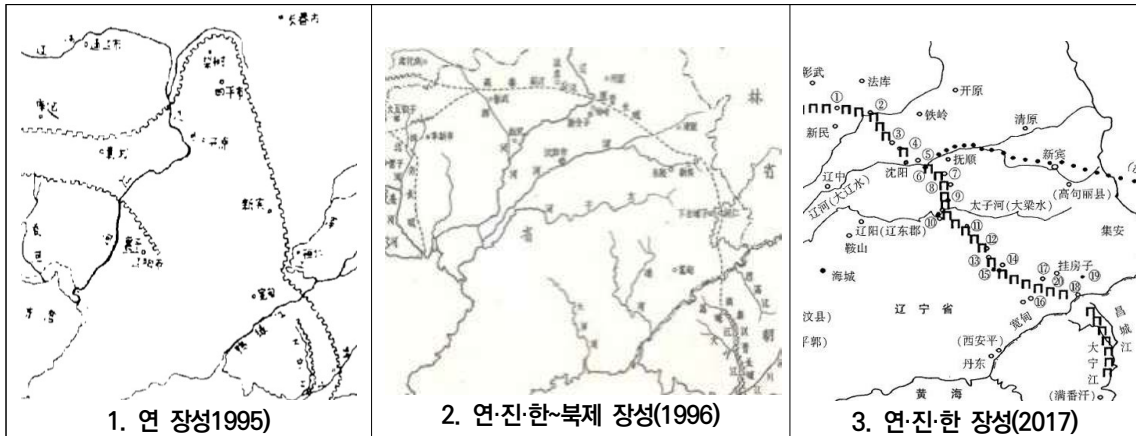
그런데 성벽이 확인되는 장성은 사실 요서지역에서만 일부 확인될 뿐 요동지역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 〈그림 4〉의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서지역에서부터 연결된 장성이 요동지역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요동지역은 사실 장성이라고 여길 만한 성벽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 추정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장성의 방향과 분포 범위에 각기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가령 1982년 발간된 『중국역사지도집』에는 요동지역 장성이 요양의 북쪽 즉, 무순을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1995년 발표된 「연북장성고(燕北長城考)」⁹⁾에는 전국~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길림성 사평 이룡호고성 북쪽으로 지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근거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부여조의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기록을 증시하여, 부여가 장춘(長春)에 있었으므로, 그 보다 아래에 있던 이룡호고성 북쪽 어딘가로 장성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물론, 장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1996년 발간된 『북방사지연구(北方史地研究)」¹⁰⁾에서는 장성의 북쪽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은 더 넓어진 반면, 2017년 발간된 『요령성연진한장성자원조사보고(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축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이를 연구의 심화로 인해 장성의 범위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새로 발견된 고고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제일 통용되고 있는 탄치양의 『중국역사지도집』에 제시된 연·진·한 장성의 분포 범위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차이가 있는 등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8) 遼寧省文物局 編著, 2017, 『遼寧省燕秦漢長城資源調查報告』, 文物出版社.

9)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1995-2.

10) 馮永謙, 1996,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그림 6〉 요동지역 연·진·한 장성선 비교도

이 외에도 연나라가 축조한 성벽으로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나중에 축조된 성벽을 연나라가 축조했다고 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2012년 6월 『요심만보(遼沈晩報)』에는 요녕성 법고에서 전국 연나라 장성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제시된 사진을 보면 실제로 돌담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발견은 이후의 다른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의 사례도 존재한다. 1986년 발간된 『요령고장성(遼寧古長城)』¹¹⁾ 보고서에는 본계와 관전 지역에서 명나라 때 축성된 석축 성벽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최근 발간된 『요령성연진한장성자원조사보고』는 이들을 연나라가 축조한 장성으로 보고 있다. 아마 연나라가 축조한 장성을 명나라가 재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둘을 연결시킬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그림 7).



〈그림 7〉 요동지역 장성으로 보고된 유적

11) 馮永謙·何溥濤, 1986, 『遼寧古長城』, 遼寧人民出版社.

4. 요동지역에 연·진·한 장성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렇게 요동지역 연·진·한 장성의 실체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진·한 장성이 요동지역에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변화된 장성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장성관은 ‘길게 연결된 연속된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¹²⁾ 1990년대부터 점차 장성을 요새나 초소와 같은 거점의 점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생겨나면서, 장성은 성벽, 봉수(烽燧), 장새(障塞)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방어체계를 이룬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³⁾ 이 견해는 이후 주류 견해가 되어 중국 국가문물국과 국가측회국에서 2007년 발표한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와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에도 적용된다. 「장성보호조례」 2조에서는 장성을 “장성의 장체(牆體: 성벽), 성보(城堡: 작은 성), 관애(關隘: 관문, 요새), 봉화대(烽火臺: 봉수), 적루(敵樓)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서는 여기에 ‘관련 유적’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장성의 범위를 한층 더 넓혔다. 즉, 선으로만 인식되던 장성이 점으로 분포하는 방어시설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¹⁴⁾

이 기준에 의하면, 요동지역에서 비록 성벽은 없지만 봉수, 성지(城址: 성 터), 유물산포지, 매납유구 등이 확인되면 이것이 곧 장성의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을 반영하여 제작된 것이 <그림 6-3> 지도이다.

그러면 성벽이 아닌 봉수, 성지, 유물산포지, 매납유구 등이 과연 장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까? 먼저 봉수부터 보자. 봉수는 실제로 성벽과 함께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능과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체계 구축에 있다. 그래서 성벽과 상관없이 통신을 위해 봉수만 설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규모가 큰 봉수의 경우 통신 기능 외에도 적을 방어하는 진지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동지역의 봉수 중 진지 기능을 하는 봉수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봉수의 존재를 곧 방어체계와 연결시켜 장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게다가 요동지역의 봉수는 대부분 한나라 시기에 축조된 것이며 이 봉수가 연·진 시기에 축조되어 한대까지 연용되었다는 명확한 고고학 증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성지는 문헌의 장(障)·새(塞)로 여겨지며, 병사들이 변경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작은 성과 같은 방어시설을 의미한다. 문헌 기록에 한나라가 요동지역에서 진나라가 사용하던 ‘새(塞)’를 수리하여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것을 장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고대 문헌에는 ‘새’를 ‘장성’과 혼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새’를 ‘장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장성’을 ‘새’로 지칭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 이 점을 보여준다. ‘새’의 형태는 대체로 새의 담장 처음과 끝이 만나는 폐쇄형, 담장 처음과 끝이 만나지 않는 개방형 등이 있다. 이 중 개방형은 길다란 성벽의 형태를 띠기에 ‘장성’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폐쇄형은 말 그대로 ‘성’을 의미하기에 장성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즉, 고대 문헌에서도 형태적으로 선으로 연결된 장성과 점으로 분

12) 陣可畏, 1995, 「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13) 彭曦, 1995, 「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現與思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吉林人民出版社.

14) 홍승현, 2014,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포하는 장·새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유물산포지와 매납유구를 보자. 유물산포지는 말 그대로 어느 시기의 유물이 지표면에서 확인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와 관련된 지상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구역에 장성이 있었는지, 다른 방어시설이 있었는지, 또는 일반 거주민이 남긴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매납유구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대부분 전국~한나라 시기의 화폐가 매장된 구덩이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중원계 화폐가 출토된 것은 이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거주했기 때문이고 이는 곧 당시 중국의 영역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역을 통해 원산지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요동지역의 경우 화폐 매납유구의 분포와 초기세형동검의 분포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사례도 확인되어, 요동지역 재지집단이 수행한 일련의 교역활동을 통해 연계 또는 중원계 화폐가 이 지역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¹⁶⁾ 한편 압록강 중상류~한반도 서북부의 산간오지에서 출토되는 명도전 등의 화폐를 고조선이 원거리 모피무역을 수행한 결과 남겨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⁷⁾ 더욱이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유물산포지와 매납유구는 일정한 선형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선 이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을 장성과 연결시킬 경우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장성선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동지역에는 연나라가 되었든, 진나라 또는 한나라가 되었든 장성으로 볼 수 있는 성벽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장성 관련 시설로 여겨지는 봉수, 성지, 유물산포지, 매납유구 등도 장성과의 관련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언론매체, 교과서, 박물관 등 공적 성격을 가진 매체에서는 연·진·한 장성이 요동지역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별 연구논문, 지도 관련 서적 등에서도 동일한 장성선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박물관에서 정식으로 발간한 출판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일반적인 주장과 다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문물지도집』, 『장성자원조사보고서』, 「유네스코 보고서」 등에는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즉 성벽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공백으로 남겨 놓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유네스코 보고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 만큼 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지도의 정확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요동지역에 연·진·한 장성의 존재는 표시되지 않는다(그림 8).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공식 견해는 요동지역의 연·진·한 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5)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16)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17) 강인욱, 2011, 「고조선의 모피무역과 명도전」, 『한국고대사연구』 64.



〈그림 8〉 중국 국가문물국 제작 지도(2017년 유네스코 보고서 수록)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